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6. 28 ~ 2020. 7. 11 제228호



▶ 파키스탄 바닷가에 앉은 아이들과 여인. 제공: WMM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바닷가에 앉아 있는 여인과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어느 아이들 같으면 달려가 물놀이를 하며 모래성도 쌓을 텐데, 이들은 가만히 앉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말 없는 저 뒷모습에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담겨있는 걸까?

어떤 이는 물놀이를 위해 찾은 저런 바닷가에 어떤 이는 난민이 되어 고무보트를 타고 해변에 도착한다. 이들은 전쟁을 피해, 경제난

을 피해 가족과 함께 보트에 몸을 실었다. 성난 파도라도 만나면 언제 보트가 뒤집힐지 모를 일이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기에 운명과 미래와 삶 전부를 연약한 고무보트에 건다. 다행히도 무사히 육지에 도착해 가까스로 구했던 구명조끼를 벗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보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망을 찾아 떠나

왔지만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다.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전능한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 돌아오라. 그분은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말 것이다.

[GNPNEWS]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49:11)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세계관 파괴하려는 발상에서 나와

최근 불교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그 배경은?

한국사회에는 차별금지법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0여 개가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필두로 민간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담장을 따라 도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그러나 기독교계가 이 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독교계에 역차별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는 등 국가 정책적으로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위해

를 가한 적이 없다.”며 “지금 추진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履行強制金)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사회에선 ‘동성애 포용을 위해 성경을 다시 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세계관을 뿌리째 뽑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기에 이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또 기독교자유통일당 역시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인 여성, 장애인 등을 앞세우지 만 결국 동성애, 이단사상을 옹호해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순교자의 소리 설립자인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는 “성(性) 혁명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 사탄이 교회에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단체의 한국 대표 에릭 폴리 목사가 저서 ‘지하교회를 심으라’를 통해 소개했다. 웹브란트 목사는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성(sex)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 사용되든지, 아니면 인간에게 가장 교만하고 악독한 자율권을 주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가 지하교회로 내몰리게 될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성 혁명’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8면 참조> [GN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12)

존재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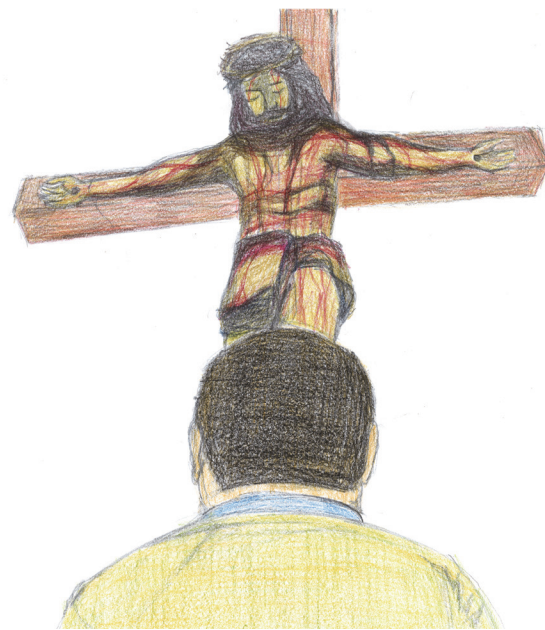
유력한 집안에 사회적 명망이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목사님을 기둥같이 잘 섬기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기 암 진단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 받고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많은 성도들이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찬송도 하지 않고 내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에 젊은 목사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주님 의지하시지요?” 대답이 없자 장로님의 마지막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채근하는 목사에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 하는 말, “예수고 뭐고 귀찮소!”

지금 가진 조건, 문제, 상황, 부족함이 여전한 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 원하고, 진정한 복음에 목말라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존재 안에 앓고 있는 영혼의 병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답게 되려면 우리

존재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 앞에 초대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대중 지나가도 괜찮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아가 충만한 죄인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 국회의원,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전폭적으로 거두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합니다. 그의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일러스트=김경선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의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당신의 존재는 변화했습니까?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취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중남미 확진자 전 세계에서 20%, 국가 붕괴론 제기



▶ 중남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The New York Times 캡처

세계 인구의 7% 가량을 차지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20%에 이르면서 이곳의 경제와 치안 등 사회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861만여 명, 사망자수는 45만 명인데, 중남미에서만 총 160만 명 이상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중남미 국가 중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브라질이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18일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만 2765명 많은 97만 8142명으로 집계됐다.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으나, 아직 소비심리가 위축된 탓에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던 의견이 많다. 경제 재건을 내걸고 2018년 당선된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경제 위축과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이 겹쳐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로 치안력이 약화한 사이 마약 조직들의 강력 범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가장 악명 높은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을 비롯한 마약 조직들이 치안 공백을 이용해 영역 다툼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전했다.

칠레 산티아고는 빈곤층 거주지역인 엘보스케에서 식량 부족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거센 시위와 약탈이 벌어져 군 병력까지 배치됐다. 콜롬비아와 과테말라 등지에서도 굶주린 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처럼 일부 중남미 국가의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국가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남반구 국가들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어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는 페루,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고 가난한 지역의 취약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GNPNEWS]

세계 아동 10억 명, 학대 위험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억 명의 어린이가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등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어린이 가운데 약 10억 명이 부상, 후천적 장애, 사망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2018~2019년 155개국 정책 전문가 1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만 4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학대로 사망했다. 조사에 응한 국가의 약 90%가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이를 엄격히 실행하는 국가들은 절반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이 회복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답한 국가는 50여 개국, 부모와 아동 보호자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답한 국가는 40여 개국에 불과했다.

헨리에타 포레 유니세프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아



▶ 학대 위험에 직면한 아이들. 출처: UNICEF 캡처

주 많은 어린이가 학대 가해자와 한 공간에 남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GNPNEWS]

교회 주일학교, 코로나로 여름 사역 대폭 축소

코로나19 여파로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국내 교회학교의 여름사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주일학교사역자연구회(대표 고상범 목사)가 전국 62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름사역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71.7%, 준비하고 있지 않은 교회가 21.7%로 나타났다.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교회의 10곳 중 7곳은 지난해보다 사역을 축소하거나

다른 계획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상범 목사는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교회가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며 “주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들은 숙박 형태의 기존 수련회 방식은 지양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예 화상회

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회도 있다.

한편, 개척교회의 경우는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개척교회 목사는 “최근 수도권 일부 개척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개척교회에 관심이 쏠려 원래 세우던 계획도 멈추고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6. 8 ~ 6. 20)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미국, 인종차별자라며 조지 워싱턴 동상 훼손

최근 미국에서 ‘인종차별 역사의 상징’으로 간주해온 인물들의 동상에 대한 철거 요구와 훼손이 잇따르는 가운데 워싱턴파크에 있는 116년 된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1732~1799) 초대 대통령 기념 동상이 ‘노예 소유주’, ‘백악관을 불태워라’ 등 낙서로 훼손됐다고 시카고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과거의 상징들을 모두 지워버린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역사를 바로 알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나라 되게 하소서.

부산교육청의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문제 있어

부산교육청이 지난 8일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게시하고 시민의견을 듣는 공고를 낸데 대해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서구에서도 논란이 많은 페미니즘 관련 양성평등, 성평등 입법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는 성적타락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좌우 분별을 하지 못하는 다음세대에게 악을 심어주는 모든 행위가 진리 안에 명백히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더욱 빛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변이... 인체세포에 더 쉽게 침투

미국 플로리다주 스크립스연구소의 연구팀에 의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변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이 발견이 확정된다면 바이러스 변이가 코로나19 대유행에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님, 확산되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변이되고 있다는 기사를 봅니다.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코로나 사태 앞에 무엇보다 인간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깨닫고 영원한 소망되신 십자가를 생명으로 붙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자녀 사이 돈독하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 낮아

강릉아산병원 연구팀이 가족 관계와 스마트폰 중독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돈독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스마트폰에 빠질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1일 보도했다. 가족의 경제력이나 부모의 근로 시간은 스마트폰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장 풍족한 예덴에서조차 아담이 혼자서 외로워했듯, 인간은 절대 자기로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 자아를 추구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을 복음의 진리를 통해 깨닫게 하소서. 가정이 십자가 원리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생명의 공간이 되게 하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6월 29일 ~ 7월 11일

6월 29일 ~ 7월 4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6.29~7.3(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6.29, 7.4(14~18시) ▶경기 의정부 / 의정부열방교회(김**)010-6269-4821, 6.30(10~14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6.30(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6.30, 7.2~4(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7.3(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7.3(12시)~4(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7.3(13~24시) ▶경남 김해 / 함께지어저가는교회(이**)010-5598-5583, 7.3(22시)~4(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2교회 진행중.

7월 6일 ~ 7월 11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전북 완주 / 복음과기도의집(김**)010-4743-9397, 7.6(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7.7(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7.7~10(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7.9(0~24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7.9(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7.11(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7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한국을 다시 경건하게 (3)

6.25전쟁, 기적의 순간들... 이 일을 자녀에게 고하라!

한반도가 6.25전쟁으로 아픔을 겪은 지 70년이 흘렀다. 그 길고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후손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같은 겨레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을까?

최근 10대 청소년들을 만나 이 전쟁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남침인가 북침인가? 한자말이 어려워 서이기도 하겠지만, 금방 답이 나오지 않는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남침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

6.25전쟁이란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이 소련 탱크 242대를 앞세워 불법으로 남침, 3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을 죽고 다치게 만든 뼈아픈 전쟁의 역사다. 국군 62만 명이 전사, 부상, 포로 등으로 희생됐고 민간인도 100만 명 가까이 희생됐다. 여기에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을 모두 합하면 500만 명 가까이 죽고 다친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

전쟁이 발발하던 당일 전방군인 1/3이 고향의 모내기 등을 돕기 위해 휴가를 떠나고 전투 장비도 후방으로 정비를 보내 전투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북한이 38선을 넘어 서부, 중부, 동부로 기습남침을 시작,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남한이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남한의 수도 서울이 북한에 의해 점령당할 수 있었을까? 탈북민들은 남한에 도착한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뒤, 그동안 북한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됐다고 말한다.

남한은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국토의 90%를 빼앗겼다. 그리고 국군은 낙동강까지 철수, 남은 대도시는 대구와 부산뿐이었다. 6.25전쟁 초기는 바로 이같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전쟁은 지루하게 이어져 무려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이 기간을 다시 되짚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하는 기적 투성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의 몇 장면을 되짚어본다.

[장면1] 미국, 복음이 전파된 한국을 돕기 위해 파병 결정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 발발

사실을 본국에 알리기 위해 급하게 출근하던 무초 미국대사를 대사관 앞에서 UP통신 기자가 만났다.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쟁 발발 사실이 보고도 되기 전이었다. 이렇게 “한국전쟁 발발” 속보가 타전돼,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그리고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불과 이틀 뒤인 6월 27일 신생국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 그 무렵 미국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해 1950년 1월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킨 애치슨라인을 발표한 것을 보면, 미국의 대한(對韓) 인식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었다. 바로 20세기에 전 세계를 누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 선교 성공사례국인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한국이 공산화되면 50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미국은 자유와 평화의 과수원이 되어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 기간에 무려 180만 명의 군인을 이 땅에 파병했다.

[장면2] 전 세계 70%의 국가가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내다

유엔군이 한 나라의 전쟁에 이렇게 연합을 이뤄, 참전한 전쟁은 6.25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전투 병력을 보낸 나라만 16개국. 이밖에 의무지원, 물자지원, 전후 복구지원 등으로 우리를 도운 나라는 모두 67개국에 이른다. 당시 전 세계 93개국 중 무려 72%의 나라가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존재감도 없는 대한민국을 도왔다. 우리는 전 세계에 값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나라다. 이처럼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유엔군의 참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에 성공한 UN군 군인들이 방조제를 넘어 싸우고 있다. 출처: 위키미디어 캡처

대한민국은 건국되던 해인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UN)총회에서 한반도의 합법적인 단일 정부로 인정받았다. 러시아의 끈질긴 필리버스터로 인해 회의의 기간 내내 안건 토의 조차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 러시아 대표의 목소리 이상(異常)으로 그의 발언이 중단됐다. 그 이후 안건 토의와 함께 표결이 이뤄지고 조직적인 공산권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찬성 48개국, 반대 6개국의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만약 이때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유엔 연합군 참전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틀 후인 6월 27일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이 중요한 회의에 당시 소련 대표는 불참했다. 그러나 소련은 일부러 이날 회의에 빠졌다. 미국과 유엔군이 한반도의 전쟁에 참여한다면, 소련은 그 기간에 유럽의 공산화를 거 세계 밀어부칠 계획이었다. 미국과 정면충돌을 하지 않으려던 스탈린의 오판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안겨주었다. 덕분에 미·영·불·중(당시는 중화민국)으로 이뤄진 안보리 회의는 신속하게 ‘공산당의 침략 저지를 위한 참전’이라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장면3] 5000분의1 기적으로 성공한 인천상륙작전

인천은 전투 교범에서 상륙작전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모든 악조건을 갖춘 지형이다. 또 수로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반드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좁은 구역이다. 만약 작전 사실을 적이 알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악조건에도 한국해군의 사전 기뢰제거와 북한의 첩보 무시 등의 기적으로 지상군 7만 5000명, 함적 261척으로 구성된 제7기동부대의 상륙작전이 1950년 9월 15일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을 뚫고 성공한 이 작전으로 6.25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다. 이미 남쪽 깊숙이 내려간 북한군은 중부지역의 보급로 차단으로 오토가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다. 덕분에 빨치산으로 돌변한 북한군으로 인해 민간인의 희생은 적지 않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 머물던 전선을 돌파하고 북쪽으로 진격, 9월 28일 서울을 공산군의 손에서 탈환했다. 곧이어 북으로 진격을 개시, 10월 1일 국군 제3사단이 먼저 38선을 돌파하고 10월 19일 국군 제1사단이 평양을 점령했다. 그



▶ 6.25전쟁 당시 사로잡은 조선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된 거제도 포로수용소. © 복음기도신문

리고 10월 26일에는 압록강변까지 진격했다.

한국의 반격이 시작되자 김일성은 10월 3일 아들 김정일 등을 만주 심양으로 보내고, 국군이 평양에 입성하기도 일주일 전인 10월 12일 평양을 떠나 중국으로 도주한다. 이와는 달리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이 함락되기 전인 6월 27일까지 서울을 사수하며 전쟁을 지휘했다. 항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짓 연설로 혼자 도주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이 청량리까지 들어왔다는 보고를 접한 이후 비로소 참모들의 뜻을 듣고 피신했을 뿐, 마지막까지 수도 서울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 망명 제안 역시 단칼에 거절했다.

[장면4]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방위조약 체결

미국은 6.25참전 전쟁이 그렇게까지 장기화될 줄 몰랐다. 한국전쟁 참전 이후 미국의 젊은 군인들의 희생과 반전여론이 커져가면서 미군은 휴전협정 체결을 통해 빨리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자 했다. 소련과 중공, 북한 역시 장기화하는 전쟁을 버티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휴전 논의는 휴전과 함께 확정되는 경계선과 포로교환으로 인해 쉽지 않았다. 마침내 경계선은 협정 체결 당시 남북한군 각각의 주둔지로 확정되었지만, 포로교환은 서로의 견해가 엇갈렸다.

공산당 측 포로는 북한군 11만 2000명과 중공군 2만 명으로 함께 13만 20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아군 포로는 미국 3200명, 남한군 7000명, 유엔군 1600명 등 총 1만 2000명이었다. 포로가 많았던 북한 측은 포로 전원의 본국 송환을, 남한은 남한에서 강제로 징집당해 북한으로 끌려간 젊은이들 때문에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석방을 주장했다. 이 문제

로 휴전협정이 장기화되자 미군은 협정과정에서 한국 측을 배제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했다.

당시 휴전협정과 함께 북한의 남침에 대한 확실한 군사적 대책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한 전략으로 이 상황을 타개했다. 협정 논의 중이던 1953년 6월 18일 새벽 2시를 기해 유엔에서 관리하는 포로수용소의 철책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2만 7388명의 포로를 석방시켰다. 6.25전쟁의 종전 이후를 일거에 바꾼 반공포로석방사건이다. 반공포로란 북한 포로 가운데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휴전협정이 어려워진 미국은 이에 분노했지만 특사를 보내 이 대통령과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한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미군을 한반도에 남겨두도록 하며,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전후 복구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이란 묘수로 우리나라는 그 이후 지난 70년 동안 장기적인 평화를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처럼 6.25전쟁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마련했다. 또 공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종전 70년이 지나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덕분에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도,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은혜의 통로도 잊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요엘 1:3) [GNPNEWS] C.K.

기획 | 창조 이야기 (36)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존재했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홍수 후 노아의 방주가 있던 아라랏산 주변에는 '카잔'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카잔'은 터키어로 '8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방주 안에 8명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마을 이름이다.

카잔 마을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발견된 12개의 거대한 바위는 9000파운드(약 4톤)나 된다. 이 바위들 위에는 동그란 구멍이 있다. 이 바위들은 배 양쪽에 달려서 닻 돌 또는 보조닻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뚫려있는 구멍이다. 나는 살면서 구멍을 많이 뚫어봤고 건축도 많이 해 봤지만, 어떻게 바위에 곡선으로 구멍을 내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 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1990년대에 갈릴리 바다가 말라서 수세기 동안 드러나지 않

았던 모든 종류의 돌들이 드러난 적이 있다. 당시 그 돌레에서 구멍 뚫린 작은 돌들 수백 개가 발견됐다. 폭풍우가 자주 치는 그런 지역에서는 배 옆에 돌을 매달아 배를 안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카잔 지역에서 발견된 이 돌이 노아의 방주의 바다 닻, 또는 보조 닻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이 돌들은 폭풍우가 칠 때 배를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바람이 많이 불면 돌이 배의 선체보다 뒤에 떨어져 와서 배를 항상 파도에 수직이 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누군가 이런 반론을 제기했다. "호빈드씨, 노아의 방주 양쪽에 큰 돌이 달려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위를 달고 다니면 배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노아가 갈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노아에게 내려진 지시 사항은 아주 간단했다. "들어와라. 앉아라. 떠 있어라. 정박해라. 나가라." 노아는 굳

이 항해할 필요가 없었다.

또 어떤 무신론자는 "6개의 돛이 달린 돛단배는 흔들릴 때마다 비틀려서 물이 많이 샌다."고 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는 돛이 없었다. 그냥 떠 있도록 설계됐다.

항해가 필요 없었던 노아의 방주

어떤 사람들은 방주 중간에 '문풀(moon pool, 심해 굴착선 중앙의 원통상 공동(空洞) 설비, 역자 주)'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한다. 왜냐하면 긴 배는 파도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배가 파도 끝에 올라가면 양쪽 끝부분이 공중에 뜨면서 휘어져 중간이 부러질 위험이 있다. 노아의 방주에 문풀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문풀은 파도가 오르락내리락할 때 물이 배의 가운데 있는 구멍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곳이다. 물론 안에 벽을 만들어야 한다. 파도가 치며 물이 문풀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거대한 피스톤과 같은 역할을 한다. 파도가 칠 때마다 '후후' 하고 공기를 배 안쪽으로 불어준다.



▶ 지금의 아라랏산은 작고, 큰 아라랏산 두 개의 성층 화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상륙한 후 화산 폭발로 지어졌다. 출처: answersingenesis.org 캡처

오히려 노아는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 가끔씩은 파도를 달라고 기도해야 했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공룡은 어떻게 되었을까? '공룡이 어떻게 되었는가?'란 질문은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 중의 하나는 공룡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17년 동안 교회 버스를 운전하며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쳤다. 나는 300명의 1학년 아이들에

게 공룡을 꺼내서 "여러분, 공룡은 언제 살았었나요?"라고 하면 "수백만 년 전에"라고 소리친다. 이 아이들은 1학년이고 아직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미 그걸 믿고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창조에 대한 진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진화론으로 오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고 있을까? 처음부터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될 일이었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미국, 코로나에 시위와 약탈... 성도들 기도의 행진 이어가

미국이 코로나19에 이어 지난 5월 25일 발생한 플로이드 사망사건에 따른 시위가 폭력과 방화, 약탈로 이어져 현재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미국 성도들은 주차장 기도회 등 위기 속에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6월 14일 주일에는 백악관 앞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 행진을 벌였다. 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의회(NAACP)와 워싱턴 D.C. 엘프리트스트리트침례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수천 명의 흑인 기독교인이 참여했으며 "분노로 격분된 상태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 나라가 통합되길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기도의 행진은 보이지 않는 미주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리(Erie) 지역의 박경숙 집사(65.로즈뷰티 근무)는 "3월 초부터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오다 3주 전부터 교회 문을 열었다."며 "그러나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주차장에서 서로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교인들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각자가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 교회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기도모임이 많이 생겨났다. 각 지역

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상황에 따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성도들은 '주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 미주 지역 교회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 또 20, 30대 청년들도 일어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런 모임들에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로 자유롭게 참여하며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가게 손님의 98%가 흑인"이라고 밝힌 박 집사는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두고 경찰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많은 흑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소득층이어서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에서 벗어나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다. 흑인의 절반 이상은 마약을 하거나 팔고 있어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집사는 또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리 시내에 폭동이 일어나 파출소와 가게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다. 이전에도

어떤 흑인은 가게에 들어올 때 욕부터 하면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며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불법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권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5년 전 아들이 피츠버그에 집을 샀는데, 동네에 흑인 마약상들이 이사 오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 급하게 집을 팔고 나왔다. 다른 이웃들도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인데도 급하게 이사를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마켓마다 음식과 물품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다. 동양 사람들을 향한 인종차별과 폭행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권력과 돈, 지혜로도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있는 미국과 열방을 위해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다. [GNPNEWS]

미국 샌프란시스코=사라 장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 6월 14일 주일, 백악관 앞에서 기도 행진을 하는 미기독교인들. 출처: 유튜브 채널 WUSA9 캡처

복음의 능력

설거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세상에 속한 마음이 없는 삶이다. 사업, 공부, 집안일도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일로 변화되어 살게 된다.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헤르만이 했던 일은 설거지였다. 그는 힘든 일을 끝낼 때마다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남들이 그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했다. 그는 "사실 나에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하나도 줌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했다."고 말했다.

물 한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집을 나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라.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의 직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된다. [GNPNEWS]

심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하듯 저는 식당에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윤영희** 집사(연경교회)



© 복음기도신문

지난 3~4월, 코로나19로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가 된 그 때, 윤영희 집사는 대구에서 식당을 개업했다. 부동산에서도 왜 지금 가게를 계약하냐며 의아해했다. 그것도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대구에서. 하지만 윤 집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개업을 준비했다.

- 교회와 식당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복음을 만나고 당연히 제가 선교사나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대구의 ‘연경’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작은 지파 출신 마노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의 소출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코로나가 휩쓸고 간 지금, 그것도 아직 아파트에 입주도 다 안 된 텅 빈 신도시에서 가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주님이 제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가게를 여는 것을 순종하게 됐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고서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 텅빈 신도시에 식당 개업

- 네.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놀라요. 광고도 안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주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재정이 있어서 가게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이 가게를 개업한건 이제 한 달 남짓이지만, 그동안 족발집에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잘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작한거죠.”

-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을 고용해야 하는군요.

“아무래도 주문 배달을 받다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하죠. 저는 이 분야에 있으면서 청소년, 청년들의 실상을 봤죠. 상당수 아이들이 돈 벌어서 유희비로 날려요. 일주일 일하고 주급을 받아가서 주말에 신나게 노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그 돈으로 술 먹고 담배피우고 세상 향락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정말 죄인 된 존재로 살았거든요. 저는 이 죄가 모든 영혼에게서 끊어지길 바라죠. 그래서 주님이 이 지역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 그게 어떤 의미죠?

“식당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와서 술을 먹기도 해요. 하루는 손님 한 명이 와서 족발을 엄청 많이 시켜서 먹고는 돈 없다고 경찰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분은 이미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더군요. 실랑이라도 붙어서 밀치기라도 하면 되려 맞았다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냥 보낸 적도 있어요. 또 우리 가게는 팔공산 앞에 있어요. 팔공산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게에 오면 더욱 기도하게 되요. 저 죄를 끊어 달라고요. 저도 바로 그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지요.”

- 계속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제가 결혼하고 외도를 하는 바람에 집을 나오게 됐죠.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요. 집을 나온 후 한 달 새 3번이나 교통사고가 났어요. 주행중인데도 뒤에서 받고, 유턴을 하려고 서 있는데 뒤에서 받고, 심지어 택시를 탔는데도 뒤에서 와서 받았죠. 몸이 다 망가졌어요. 마

지막 교통사고가 나고 입원을 했는데 제 옆 침대에 계신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주시는데 갈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병원에서 나가도 돌아갈 곳도 없는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용기내서 말했어요. 나도 교회에 같이 다니면 안되겠냐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일하면서 보게 된 죄악들을 끊어 달라고 기도

-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셨네요.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지내셨나요?

“병원에서 만난 권사님이 머물 곳을 마련해주셨어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재혼하면서 교회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린 사실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게 찾아와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하게 됐죠. 새벽부터 낮과 밤까지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남편을 교회 관리집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교회에 머물게 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됐어요. 다시 직장에 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서 다시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 또 무슨 일이 생겼나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제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당이 안 되더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은 밤새 게임에, 술에, 음란 중독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집기들을 부수고 저를 때

렸어요. 기도하고 돌아와도 남편이 때렸죠. 그때는 교회에서 살 때였는데 죽고 싶었어요. 그렇게 죽어야겠다고 맘 먹고 교회를 나서는 데 주님이 저를 잡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길가에서 평평 울었어요. 그렇게 돌아왔지만,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또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 힘든 시간의 연속이군요.

“교회를 떠나니 마치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만 같게 느껴졌어요. 숨 쉬기도 힘들고 너무 두려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잠시 공황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교회를 다시 옮겼죠. 하루는 한 청년이 아웃리치를 간다면서 기도카드를 줬어요. 그걸 받아드는데 저도 그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 청년에게 물어 물어 먼저 복음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의 죄 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죄인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저의 잘못된 지난 삶을 정산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학교 이후부터는 생명에 대해 다뤄가기 시작하셨어요.”

-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복음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더군요. 쌍둥이인데 하나가 심장이 많이 약하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죄덩어리 남편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가 심장이 멈췄고, 그러면서 두 아이 다 잃게 됐어요. 남편은 임신한 것도 모르고 몸 간수를 못해 그렇게 됐으며 미친 듯이 하나님 욕을 했어요. 그렇게 생명이 처음으로 제 곁을 떠났어요.”

- 처음이라면 계속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반대하는 일을 했다가 사이가 서먹하던 때였죠. 웃으면서 수술실로 들어간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다고, 아직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고. 7시간

걸린 수술 후 15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 면회시간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취하고, 기도했어요. 15일 뒤 엄마가 극적으로 깨어나 일반 병실로 옮기고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병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은 엄마와 아름다운 섬김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2시간마다 기저귀를 바꾸고, 맨손으로 대변을 닦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눴어요.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다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엄마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에서 깨어나지 않는 엄마를 주님께 의탁하고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약속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됐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를 가족이 다 미쳤다고 했죠. 저도 불효자 같았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믿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선교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고막에 이상이 생겼어요. 터진 것 같이 아팠어요. 그때 주님이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예요. 엄마도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곧 평안해지더군요. 제 귀도 아웃리치 기간을 보내며 나아졌고요.”

-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간 발걸음이네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죠?

“깨어나긴 하셨는데,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냐’는 물음에 눈을 깜빡였어요. 감사했죠. 그러나 얼마 후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무 슬펐어요. 그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던 성경의 내용을 떠올렸어요.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요. 그러다 이번에는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갑상선암이라고 했어요. 수술대에 올랐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어린 양의 눈물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주님은 ‘네 아이를 데려갔을 때 불평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를 데려가도 되겠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답 (6면에 계속)



▶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일하며. 제공: 윤영희 집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나는 기도하리라 (6)

그들은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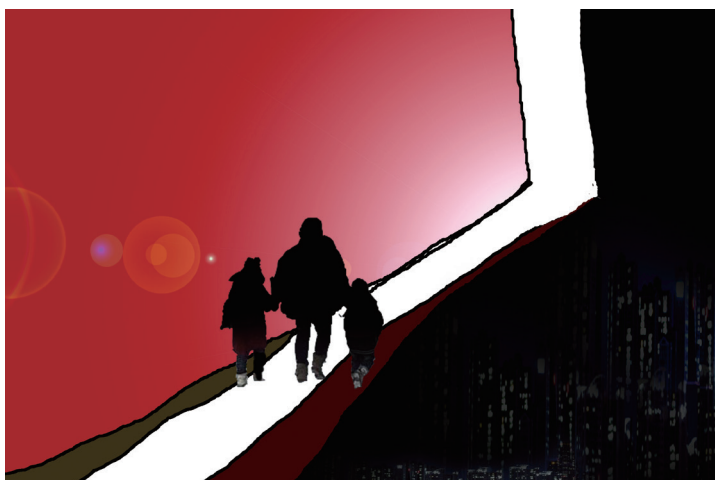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운명을 건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복음만을 전부로 삼고 '나는 기도하리라.'는 결론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테스트가 있다.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웅적 세대가 딱한 가지 실수를 범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여전한 자유민이 되어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은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그 끔찍한 사사시대를 만들어내는 단초(端初)가 되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 2:10)

고작 '신앙' 하나 실패했다는 의

미가 아니다. 이 실패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망쳤다. 신명기 6장에서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 이 명령에 이어서 요구하신 것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 통박, 경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줄을 알아, 생명과 진리의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존재가 되게 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유일한 유산으로 남길 것을 명하셨다.

그런데 모든 걸 성취한 후 살만 하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자식들 기름지게 잘 키우고, 성공했다 싶었는데 '아빨싸', 신앙의 유산은 남기지 못했다.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부모들의 '천박한 가치'



일러스트=노주나

는 그대로 드러났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난 뼈아픈 실패였다.

죄송하게도 역사에 드문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도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타락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철(前轍)을 밟고 있다. 우리 부모세대는 예배당 잘 짓고, 굉장한 신학교 세우고, 한강의 기적과 함께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

는데 과연 우리 다음세대는 이대로 하나님 만나도 괜찮을까. 이쯤 준비해놓았으면 될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늘 가치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재주꾼, 세련된 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치와 진리에 목숨을 걸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한나

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진리에 운명을 걸고 걸어갈 용기 있는 믿음과 진리의 사람으로 키워냈는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시 90:16~17)

역사를 변화시킬 이 민족의 희망이자 우리 교회의 희망은 복음이 전부된 우리의 다음세대다. 한나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우리 마음 중심의 최후의 헌신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2018년 1월)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2020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 모집 대상**
 - 2020학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11세)부터 고등학교 1학년(17세) 연령대의 학생(18세는 1년 하향지원 가능).
 -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합니다.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 접수 기간: 2020년 7월 18일(토) ~ 2020년 8월 7일(금) 소인까지 받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
 - 2020년 7월 18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20년 6월 22일(월) ~ 2020년 7월 11일(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양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2차 면접 및 필기고사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020년 8월 29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 ·2020년 9월 15일(화) 입학식
- 문의 및 접수처**
 - 010-2644-5725, 010-8459-1718 헤브론원형학교 입학사무처
 - hebronschool@hanmail.net
 - 우)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구 시운수양관)

2020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헤브론원형학교는 초 4학년~고 3학년 연령의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7.7(화)~15(수) 기간 중 3박 4일간 개최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국 열 개 교회에서 헤브론 캠프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목상과 복음 강의, 복음 스킷, 기도회, 소그룹 모임 등의 형태로 진행될 이 캠프 참여 희망자는 5.25(월)~6.20(토)까지 홈페이지 (www.thehebronschool.org)를 통해 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회비 : 합격자에 한해 안내 ·문의 : 010-2584-5460

Interview

<5면에 이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다

했어요. 그때 저는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연이은 교통사고, 유산과 가족들의 죽음까지

- 정말 죽음을 통과하셨네요. 그래도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가족들이 계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울케 어머니와 남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저희 삼촌이 그 다음에, 남편의 형도 돌아가셨어요. 석 달이 안 되는 기간에 모두 9명이 돌아가시니까 맥이 다 풀리더군요. 물론 그때 주님의 역사도 있었죠. 시어머니와 큰아주버님, 큰 울케, 남동생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죠. 죽음 앞에서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생각해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우리 남편도 전립선암에 걸렸어요. 지

금 저렇게 죽으면 저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저도 옆에 있으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마음에 많이 괴로웠어요. 저는 복음을 만나고 선교를 하든지 무엇이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게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남편과 가정의 땅 끝이라고요. 제가 복음을 만난 이후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남편도 수술은 잘 됐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쯤 주님은 제게 주님이 불러 주신 이 이곳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GN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함께 신앙훈련을 받은 자매들과 '등불소녀 기도모임'에서. 제공: 윤영희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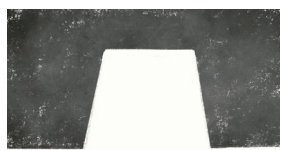
이기적인 엄마가 사랑할 줄 아는 엄마로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5)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의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을 말씀한다.

말씀을 보며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는 엄마인 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전해지게 될지 아찔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 하는 것을 보고 배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전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학교도 다니기 전부터 보살이라 불리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자주 산꼭대기에 있는 절에 올라가 불상들 앞에 절을 했다. 친한 친구들이 다닌다는 교회에 나가보는 것이 꿈이었지만 아버지는 한 집에 두 신을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혼을 내셨다. 이렇게 20대 후

반까지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았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없는 삶이었지만 마음의 목마름



일러스트=고은선

은 날마다 커져만 갔다. 교회를 나가는 한 직장 선배를 눈여겨보다가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나의 첫 신앙 생활이 시작됐다. 교회를 처음 나간 날부터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와 회사,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죄와

는 멀어지고 변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남편을 만나고 결혼과 출산이 시작되면서 나의 존재적 죄인의 실상을 마주하게 됐다.

그건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엄마라는 사실이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오랜 시간 아이들을 양육했다. 그러던 중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끌려 절에 다니는 것이 싫었던 나의 어린 시절처럼 아이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 갔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나는 나 외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랑해야만 했다.

그때, 향유욕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던 여인을 보게 됐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눅 7:50)고 말씀하신다. 그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네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보았다. 주님을 믿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생겨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치르고 나를 구원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주님은 내게 온전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 해주셨다.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내게 주님은 다시 우리 자녀들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신다.

그 이후로 나는 유니게와 로이스와 같이 주 예수와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를 세우셨듯, 이 땅에 나와 같은 어머니들을 세우시길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오늘도 기도드린다.

[GNPNEWS]

정혜정

그림 묵상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믿습니다. 아이들에겐 부모가 전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엄마나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때론 자신의 잘못으로 혼이 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얻지 못하여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주님께로 달려가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GNPNEWS]

글.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북한의 도발, 자신들의 의도대로 대북정책 추진하라는 협박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최근 북한이 전단 살포에 관련해 막말을 쏟아내며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데 대해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한국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다고 정창열 북한연구회장이 데일리NK의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정 회장은 “북한의 체제 목표는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김일성을 시조로 하는 왕조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화해와 번영’을 기조로 하는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체제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조선 집권자’는 자신들의 전략적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적 지원’, ‘선순환’ 같은 발언만을 하고

있으니 ‘무지(無知)’라는 용어를 동원해서 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여정은 “대북 전단 살포라고 하는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회장은 “이는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탈북민들의 불순한 행동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북한 통치자의 눈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無能)’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북한이 문 대통령을 ‘무지·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것이 최근 대남 협박의 본

질적인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체제로 전락시킨 ‘무능’한 정권이 교역량 세계 10위권의 한국 국민이

선출한 한국 대통령을 ‘무지’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恣意的)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무

능’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꼬집었다. [GNPNEWS]



▶ 북한에 띄우는 성경을 담은 풍선. 출처: 한국순교자의소리

북한 주민, 탈북자 규탄하면서 그 가족은 ‘부러워’

현재 북한 당국은 연일 탈북자 규탄집회를 조직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탈북자 가족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주민들은 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탈북자를 규탄하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집회가 끝난 뒤 탈북자들을 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은 이처럼 나라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끄떡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규탄집회에 참가했던 일부 주민들 속에서 ‘요즘 같은 세월에 진정한 최고 존엄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미국 제재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탈북자들에 대한 일종의 동경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탈북자 규탄집회를 거듭할수록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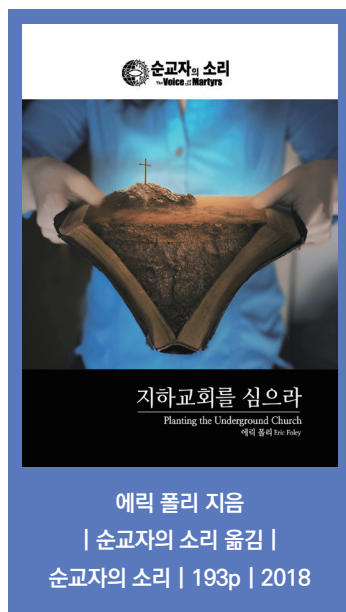
들 속에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당에서는 탈북자를 인간쓰레기, 조국의 배신자라고 규탄하지만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주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인민을 협박해 등골을 빼먹는 간부들이나 이런 사정을 보고도 못 본체 방관하는 당중앙”이라고 강조했다. [GN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에릭 폴리 <지하교회를 심으라>

인기·번영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을 선택하라

공산주의는 그릇에 불과, 공산주의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존재한다



순교자의 소리 설립자인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는 자유 세계 교회가 언젠가 심각한 핍박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예견했다. 그는 공산주의는 그릇에 불과하며 공산주의 내부 깊

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마르쿠스가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고 한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산주의가 사탄의 세력이라는 점,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폭로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이 책을 통해 더욱 은밀하고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와, 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한국사회는 지금 동성애와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이슈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와 세상의 입장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사회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차별과 규제, 공공연한 적대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다음세대가 겪게 될 상황이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온다. 웹브란트 목사와 당시의 기독교 사상가들은 흔히 ‘성(性) 혁명’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 사탄이 교회에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보았다. 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성에 대한 금기를 없애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영적 파멸을 가져다 줄 것임을 간파했다.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이들도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성(sex)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 사용되든지, 아니면 인간에게 가장 교만하고 악독한 자율권을 주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지하교회로 내몰리게 될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성 혁명’임을 보게 된다. 실상은 공산주의와 성 혁명, 이 두 혁명이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것은 인간이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투쟁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서구 기독교인의 성 혁명에 대한 대처는 실패했다

저자는 과거 서구 자유세계 기독교인들은 성 혁명 문제에 대해 주로 정치적 입장을 취하면서 시위 행진, 동성애 인권 지지자들과의 공식적인 논쟁, 필요하다면 법정으로 가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패배했다. 결국 동성 결혼은 현재 거의 모든 서방 국가에서 합법화 됐고, 교회는 조롱과 규제, 부당한 처사에 직면하고 있다. 사탄은 공산주의를 도구로 써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듯이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만 아니라 ‘각

개인의 정체성 영역’을 파고들어 이 세상을 더욱 파멸로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 에릭 폴리 목사는 인기와 번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핍박과 가난에 기초한 지하교회 모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기관화되지 않는 교회, 저항과 타협이 아닌 복음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교회, 건물에 매이지 않는 교회,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본질인 교회로 심겨지도록 구체적인 실행지침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의 제자화는 큰 도전이다. 저자는 이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걸었던 핍박과 가난, 혹은 무소유(주님이 전부되는)라는 그 오래되고 믿을 만한 길로 돌아오라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장했다. [GNPNEWS]

양동원 선교사

심각한 다음세대 성교육 (4)

교과서에서 ‘에이즈의 원인 동성애’ 문구 2000년부터 삭제

18~19세 HIV감염자 71.5%, 동성간 성 접촉

올해 국내에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감염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메디칼타임스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가 이끄는 국내 다기관 연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HIV 감염 사례를 전망했는데, 그 결과 2020년에는 감염자가 2만 839명으로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HIV/AIDS 신고현황에 따르면 신규 감염인의 성별이 남자가 91.2%(1100명),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젊은 연령대가 전체 감염인의 60.0%(723명)를 차지했다. 또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된 사람 모두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답했으며, 특히 18~29세 에이즈 감염자 291명 중에는 동성간 성 접촉이 50.5%, 18~19세(14명)에서는 동성간 성 접촉이 71.5%에 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이 모두 성 접촉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젊은 남자, 특히 동성간 성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남성간 성 접촉으로 에이즈가 감염된

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동화사출판사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09) 110~112쪽에는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대해 소개하면서 HIV에 감염된 혈액 수혈, HIV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사용, HIV 감염인의 모유 수유, HIV 감염인과 콘돔 없이 성관계(남녀의 그림)만 소개했다. 남성 감염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성 성 접촉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설명이 없다. 교과서에서 당연히 교육되어야 할 에이즈 예방 교육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우학연)는 “1999년에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가 이석태 변호사와 진선미 변호사에게 교과서의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라는 교육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9년 12월 24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동성애를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 성행동으로 서술한 고등학교 윤리와 교련 교과서 문구들이 2000년부터 삭제됐다. 이유용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윤리담당 연구사는 “에이즈, 동성연애 등이 늘면서 성도덕 문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존 고



▶ 에이즈 예방 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에이즈 감염경로의 예제. 여기에는 동성애라는 핵심적인 예제가 빠져있다. 출처: 중학교 보건 교과서(2009년), YBM 출판사(p.123) 캡처

교 윤리 교과서 문구를 2000년부터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 3월 30일 발효된 청소년보호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도 동성애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삭제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교육의 결과는 현재 청소년들의 삶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을 14살로 소개한 청소년은 자신이 항문성교를 2번 했는데 에이즈에 걸리라는 질문을 올렸다. 또 한때 동성애에 빠진 적이 있는 중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소년은 “항문삽입 등으로 항문에 문제가 생긴지 4달째”라며 “병원도 가보고 탈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가스실금과 변실금이 있다.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인생이 망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소년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2년 정도 했다.”면서 “보건소에서 HIV 보건자라고 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은 “영화,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와 포털 사이트의 웹툰, 언론에서 동성애 미화·조장 풍조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교과서의 에이즈 예방 교육시간에서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라는 사실을 교육받지 못해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대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계속> [GN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5. 28 ~ 6. 18 (가나다 순)

개인 강을수 강인숙 권순호 김다경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김정희 김화평 노은옥 문미현 박경희 박성규 안민자 안병윤 안수경 유국주 유재선 윤미자 은종숙 이남준 이삼연 이영심 이영옥 이은주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조형광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점옥 최정숙 하은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고현교회 선한목자교회 모리아선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순회선교단 양덕원감리교회 목자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리교회 팔복감리교회 하원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